

도시지역작전 특성 이해도 높이고 전투기술 향상

육군52사단, 마일즈 활용 경연대회
예선 통과 8개 팀 130여 명 불꽃 경쟁
속달한 기량 검증·창의적 기술 교류

육군52보병사단이 유사시 도시지역에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다.

사단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인천 서구 도시지역전투훈련장에서 '25년 하반기 도시지역작전 전투기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사단 예하 부대별 예선을 통과한 8개 팀 130여 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도시지역이 대다수인 사단 작전 환경과 특성에 부합한 전투기술을 높이기 위해 열렸다. 예하 부대별로 속달한 전투 기량을 검증하고 자체 고안한 창의적인 전투기술을 교류하는 장으로도 삼았다.

전반기 대회에서 발견한 미흡점과 후속 조치 과제를 보완해 실전성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사단은 도시지역작전 전문 훈련장의 입체적 전투환경에서 작전팀별로 대응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했다. 미래 도시지역작전 양상을 반영해 팀별로 드론 운용 인력을 필수 배치한 것도 주목 받았다.

단시간 내 승부를 가리는 기존 대회 방식



육군52보병사단 장병들이 인천 서구 도시지역전투훈련장에서 열린 도시지역작전 전투기술 경연대회에서 건물 외벽에 엄폐하며 사격하고 있다.

부대 제공

에서 벗어나 각 경기 시간도 1시간으로 늘렸다. 또 실제 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반영해 팀별 작전 지속 능력, 상황 대처 능력, 체력, 지휘·통제 능력까지 복합적으로 평가했다.

참가 장병들은 다중통합 레이저 교전 체계(MILES·마일즈)를 활용한 쌍방 교전에서 단순한 전투결과 외에도 신속한 전술 침투 및 진입, 건물 내부 제압, 부상자 호송, 상황 대처 능력, 민간인 구호 등을 평가 받았다. 이를 통해 화기로 적을 제압하

는 능력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작전에 대한 개인과 팀 단위 전투기술을 점검하는 기회가 됐다.

실전을 방불케 한 대회 결과 최우수부대에는 햇불여단, 최우수전투원에는 독수리여단 기동중대 정운승(중사) 지원조장이 각각 선정됐다. 햇불여단 김효섭(대위) 기동중대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지휘관으로서 도시지역 전투에 임하는 자신감을 높일 수 있었다"며 "대회를 준비하며 부대원들의 임무수행능력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사단은 대회의 결과를 분석해 추가 훈련 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제대별 전술훈련과 제병협동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류지윤(중령) 교육훈련참모는 "대회에 참가한 장병들이 사단 작전지역 특성 이해도를 높이고 전투력을 향상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정례적으로 대회를 개최해 전투력을 향상하는 장으로 삼겠다"고 언급했다.

최한영 기자

자기계발 의식 높이고 어학 학습 동기 부여

JFKN어학연구소, 육군31사단에 수강권

육군31보병사단은 지난 11일 "JFKN어학연구소가 최근 부대를 방문해 위문 강연을 진행하고 1억 원 상당의 온라인 어학 수강권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병들의 자기계발 의식을 높이고 어학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학연구소는 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과 군무원을 위해 수강권을 지원하며 장병들의 미래 준비를 응원했다.

행사에 앞서 부대는 사단 장병들을 대상으로 주재현 어학연구소 대표의 위문 강연도 실시했다. 강연은 실질적인 자기계발 경험과 어학 학습의 중요성을 전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강연에 참석한 이승연 일병은 "군에 와서 영어 공부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대표님의 강연을 듣고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용기를 얻었다"며 "무료 수강 기회를 활용해 미래를 준비하며 보다 알찬 군 생활을 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박상원 기자



이일용(왼쪽 둘째) 육군31보병사단장이 지난 10일 사단에서 열린 온라인 어학 수강권 기증식에서 주재현(오른쪽 둘째) JFKN어학연구소 대표로부터 수강권을 기증받고 있다.

부대 제공

안보 현장 체험 기회 제공하고 진로교육

육군55사단, 지역 고교생 초청 행사

육군55보병사단 산성여단 성남대대가 지역 고교생에게 안보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민·군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대대와 야탑예비군훈련대는 지난 11일 경기 성남시 야탑고등학교 학생 부대 초청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청소년들이 국방의 중요성을 느끼고 군의 위용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렸다. 대대와 야탑고는 40여 년간 율타리를 맞닿아 지냈으며, 자매결연을 체결해 모범 학생 표창 수여 등의 교류를 이어왔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장비 전시 부스에서 개인화기, 방탄복, 통신장비 등을 살

펴보며 군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실제 전장과 유사한 환경의 영상 모의사격에도 참여해 군 작전환경을 간접 체험했다.

육군 모집홍보팀은 다양한 군 복무 형태를 소개하는 진로교육을 하며 주목받았다.

모집홍보 체험부스에서는 육군 모집홍보 애플리케이션(Goarmy Camp) 가입 기념품 추첨과 현장 진로상담이 이뤄졌다.

김형정 야탑고 교장은 "학생들에게 장병들의 노고와 국가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행사 참가자들이 타인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대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지역 학생 대상 진로 멘토링 등 교류 활동을 점차 확



육군55보병사단 산성여단 성남대대와 야탑예비군훈련대가 지난 11일 개최한 야탑고등학교 학생 부대 초청행사에서 학생들이 개인화기를 들여보고 있다.

부대 제공

대할 계획이다.

김경근(중령) 대대장은 "군 인력 획득이 어려운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고등학

생들이 군과 국토방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최한영 기자